



# 4·3 행불인 수형자 군사재판 재심청구

## 유족협의회 “10명이 우선 청구… 늦었지만 억울함 풀려 자손이 나셨다”

제주4·3 당시 이뤄진 군사재판의 불법성이 ‘수형생존인’을 통해 입증된 가운데 이번엔 ‘행방불명인 수형자’에 대한 재심이 청구된다.

제주4·3희생자유족행방불명인 유족협의회(회장 김필문)는 3일 제주지방법원에 행불인 수형자에 대한 재심을 청구한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행불인 수형자는 1948년 12월과 1949년 7월 제주에서 군사재판을 받아 옥지 형무소에서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희생자를 말한다. 수형인 명부에는 2530명의 이름과

형량, 형무소 등이 기록됐는데, 이 가운데 상당수가 고향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실종됐다. 올해 1월 재심 재판에서 ‘공소기간’ 판결을 받아 억울함을 풀어난 생존수형인 18명 역시 이 수형인명부에 포함된 이들이다.

이번 재심 청구에는 행불인 유족들 가운데 10명이 대표가 돼 ‘청구 대리인’으로 나서게 된다. 재심 대상자가 없기 때문에 유족이 직접 군사재판에 의해 수형돼 실종됐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하는 상황이다. 김필문 회장은 “재판을 한 번에 진

행하는 것은 어려워 10명이 우선 재심을 청구하고, 이후 진행 상황을 보며 소송 규모를 확대하겠다”며 “너무 늦었지만 이제라도 억울함을 풀기 위해 자손들이 나서서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1월 17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김평국(90) 할머니 등 18명의 수형생존인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재심 청구사건에 대해 공소기간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법정

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어떤 범죄로 재판 받았는지 모른다’고 진술하고 있고, 어떤 자료에도 예심조사나 기소장 등본의 송달에 관한 언급을 찾아볼 수 없다”며 “특히 군법회의를 받은 2530명에 달하는 사람의 수와 제주도에 소개령이 내려진 이후 피고인들이 군·경에 체포된 시기, 군법회의 개최일자 등 제반사정을 종합해도 단기간에 다수의 사람들을 집단적으로 군법회의에 회부해 예심조사 및 기소장 등본 송달 절차가 제대로 이뤄졌을 것이라 추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송은범기자



박기남 제주동부경찰서장이 2일 본서 4층 회의실에서 ‘제주 전 남편 살인사건’에 대한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김현석기자

## 전 남편 살해혐의 30대 긴급체포

### 경찰, 범행동기 등 조사 거쳐 구속영장 청구

제주에서 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경찰에 긴급체포된 30대 여성이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살인 등의 혐의로 고모(36)씨를 지난 1일 긴급체포하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고씨는 지난달 18일 전라남도 완도항에서 배편을 통해 차량을 가지고 제주도에 도착, 25일 제주시에 모 펜션에서 전 남편인 강씨(36)와 둘 사이에 낳은 자녀(5)와 함께 만났다.

이후 27일 강씨의 가족이 자녀를 만나러 나간 이후 연락이 안되며 경찰에 실종 신고를 접수했다.

경찰은 고씨를 상대로 강씨의 행방을 물었고, 고씨는 “25일 자녀와 같이 전 남편을 만나 오후 5시쯤 해당 펜션으로 이동했고 세시간 뒤인 오후 8시쯤 강씨가 펜션에서 나갔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펜션 인근 폐쇄회로(CC)TV 확인 결과 27일 고씨 혼자 펜션을 나오는 모습을 확인한 것 외에는 진술 내용이 일치하지 않아 경찰은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해당 펜션에 대한 정밀 감식 결과 다량의 혈흔이 발견됐고, 국과수에서도 이 혈흔이 강씨의 유전자와 일치한다는 통보를 받았다.

이에 경찰은 28일 배편을 이용해 제주를 빠져나간 고씨를 지난 1일 충북 청주시 소재 주거지에서 살인 등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주거지·차량 등에 대한 압수수색 결과 범행에 쓰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몇 가지 도구도 확보했다.

경찰 관계자는 “고씨가 1차 진술에서 살인혐의를 인정했지만 범행동기, 시신 유기 장소 등 2차 진술을 거부하고 있다”며 “단독범행이라 주장하고 있지만 공범 가능성도 확인 중에 있다”고 전했다. 이어 “범행동기 및 시신 유기 등 보강 조사를 거쳐 오는 중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고씨는 강씨와 성격 차이로 2년 전쯤 이혼했으며, 이후 재혼해 제주에 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고씨는 별다른 전과나 정신병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현석기자 ik012@ihalla.com

## 민주당원 명부 유출 사건

### 지검, 전 도의원 실형 구형

지난해 6·13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후보 경선 당시 불거졌던 ‘당원명부 유출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 제주도의회원과 40대 당직자에게 징역형이 구형됐다.

제주지검검찰청은 지난달 31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도의원 A(63·여)씨와 당시 문대림 캠프 자원봉사자인 B(48·여)씨에게 각각 징역 1년과 2년을 구형했다.

한편 지난해 4월 12일 당시 도지사 후보 경선에 나섰던 김우남 예비후보는 “7만여명에 이르는 당원명부가 유출됐고, 이를 문 예비후보가 선거운동에 사용한 정황이 확인됐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송은범기자



“우리 별을 지켜요”... 2019 지구환경축제 1일 제49회 지구의 날을 기념하는 ‘2019 지구환경축제’가 제주시민복지타운 광장에서 열려 행사 참가자들이 체험활동을 하고 있다. 강희민기자

## 제주 휘발윳값 유류세 인하 효과 끝?

### ℓ 당 1615원... 6개월여만에 예전 가격대 올라서

### 전국평균보다 78원 비싸고 대부분 주유소 1620원

제주지역 휘발유 가격이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며 유류세 인하 시기 전 가격대를 향하고 있다.

2일 유가 정보 사이트인 ‘오피넷’에 따르면 이날 제주지역 보통휘발유 가격은 ℓ 당 1615.15원을 기록하고 있다. 전국 평균가격은 1536.50원이다. 이날 기록한 제주지역 가격은 유류세 인하시행 첫날인 11월 6일

(1656.35원)과 이튿날 기록한 1619.09원에 가장 근접한 것이다. 유류세 인하 사흘째인 11월 8일 가격(1611.78원) 보다 높은 수준이다. 최근의 인상 폭을 감안할 경우 머지않아 유류세 인하 전 가격대로 올라설 전망이다. 제주 시내 상당수의 주유소에서는 현재 ℓ 당 1620원씩 팔고 있다.

제주지역 휘발유 가격은 유류세 인하 이후 올 2월 27일 ℓ 당 1358.97원까지 하락한 뒤 반등하기 시작했다. 3월 8일 1400원대(1402.68원), 4월 27일 1500원대(1507.63원)로 올라갔다. 이후 정부가 지난해 11월 6일부터 6개월간 시행한 유류세 인하 조치를 단계적으로 환원하기로 함에 따라 5월 7일부터 유류세 인하 폭을 15%에서 7%로 줄였다. 이에 따라 가격인상에 가속도가 붙었다. 그리고 5월 29일 1600원대(1606.96원)에 재진입한 것이다.

특히 제주지역은 울들이 휘발유 가격 상승률이 가장 높은 곳으로 나타났다. 전국 휘발유 가격 상승률은 11.7%를 기록한 가운데 서울이 8.8%로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낮았다. 반면 제주가 14.3%로 가장 높았고 대구 14.1%, 부산 14.0%, 인천 13.9%, 대전 13.6%, 경남 12.9%, 전북 12.3%, 울산 12.2%, 경북 12.0% 등이 뒤를 이었다.

경유가격 역시 1465.90원으로 전국평균 1398.16원보다 66원 가량 비싼 편이다. 유류세 인하 7일 뒤 가격(1462.79원)을 넘어선 셈이다.

한편 휘발유 가격은 당분간 더 오를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조상윤기자 sycho@ihalla.com

## 조업중 50대 선원 숨져

## 현금인출기 위 돈 슬쩍

지난 1일 오후 8시28분쯤 서귀포 남쪽 420km 해상에서 조업을 하던 서귀포 선적 D호(41t·승선원 9명) 선원 J(58)씨가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는 신고가 해경에 접수됐다.

이에 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3000t급 경비함정과 헬기를 이용해 2일 오전 8시5분쯤 J씨를 제주 시내 병원으로 옮겼지만 J씨는 숨졌다.

해경은 D호 관계자를 대상으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서귀포경찰서는 은행 현금인출기 위에 있던 남의 돈을 훔친 혐의(절도)로 A(62·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2일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1일 B(32)씨가 서귀포시 소재 한 은행 365자동화코너 현금인출기 위에 21만원을 인출해 놓아두고 깜빡해 자리를 비운 사이 가져간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현장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지난달 31일 A씨를 검거했다. 문미숙기자

### 제주60+교육센터 교육생 모집 (책놀이지도사양성과정)

사단법인 느영나영복지공동체는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으로 무료 취업교육을 통해 업무능력의 전문성을 갖추고자 책놀이지도사 양성과정에 참여하실 분을 모집합니다.

구분	교육명	교육기간	교육시간	모집인원
자격반	책놀이 지도사	2019. 6월 중	24시간 (14:00~18:00) 총 6회	10명

\* 출석 80%이상 수료 후 자격검정을 거쳐 자격증 발급  
\* 모집인원에 따라 교육일정이 조기마감 또는 변경되거나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수료 후 노인일자리 취업연계 가능

【신청대상】 60세 이상 건강한 분  
【신청기간】 2019. 06. 03. ~ 2019. 06. 14.  
【신청장소】 직접방문접수 / 사단법인느영나영복지공동체 (제주시 용담로 128, 2층)  
【상담전화】 742-0606

제주60+교육센터는 기업 맞춤형 양성 및 60+의 다양한 사회능력 개발을 위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자 보건복지부,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제주특별자치도가 지원하고 사단법인 느영나영복지공동체에서 운영합니다.

사단법인 느영나영복지공동체

### 친환경 전통건축 [한옥에서의 건강한 삶.]

## 선자연

이 실현합니다.

시공

- 전통건축(살림집, 사찰)
- 전원주택 시공 및 리모델링
- 전통 구들 시공
- 문화재청 등록 [문화재수리기술자] 직접 시공
- 전통건축 대목이 직접 시공참여 기술지도
- 나무, 흙, 돌 등 천연재료를 사용한 친환경 건축
- 제주 전통건축 양식 및 기호 반영한 설계 시공
- 품질 우선 시공, 합리적인 건축비

상당 : 010-5308-5796, 064-764-0488

전통한옥문화재사랑 선자연

### 전액무료교육 매월최대 116,000 지급

순서: 방문 상담 → 고용센터

## 전기내선공사 실무자양성과정

1기 취업 86% 달성 100% 취업연계

대상 실업자/구직자/매출 1억5천 미만 사업자

교육기간 6월 개강예정 - 6.5개월 과정

교육시간 09:00~16:00, 1일 6시간 (주5일 교육)

교육내용 전기 배관배선공사, 약전설비, 소방설비, 전기설비설계 등

\* 필요서류 : 내일배움카드 (카드신청후 수령까지 6주이상 기간 소요됩니다.)

---

### 전액무료 매월최대 50,000 지급

## 영어초급 과정

대상 실업자/구직자/매출 1억5천 미만 사업자

교육기간 6월 27일 ~ 9월 23일 - 09:00~12:50

교육시간 1일 4시간 - 3개월 과정

교육내용 회화, 문법, 관공영어

(주)제일직업전문학교

T : 747-5252 jejuwon.com

\* 본과정은 고용노동부,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으로 진행합니다.

### 제주도 “토종” 태양광 기업

## 태양광 "누가" 시공 하세요?

발전사업

- 초기자본 無
- 토지소유자 무자본 발전소 운영!
- 유지/보수/관리 전문
- 친환경 스크류 공법

가정용 태양광

- 제주에너지공사 선정 기업
- 가정용 태양광전문 설치 기업
- 고장난 태양광 수리(A/S)

200여개 사업 실적 보유  
제주 최대 태양광 발전사업기업

(주)나눔에너지

064-745-0420 / 010-6765-8853  
www.nanoomenergy.com